

가치의 본질과 현실적 수요 : 정치외교학과의 교육방향

서 범 훈

승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침묵의 정치학

미 국에 유학할 때의 이야기다. 한 미국 친구가 전공이 무엇인냐고 묻길래 정치학(political science)이라고 대답해 주었더니, “아하, political silence!”라며 농담을 던졌다. 발음의 비슷함을 빚댄 착상이라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치학과 침묵을 연결시킨 이러한 농담 속에는 심상치 않은 몇 가지 의미가 발견된다. 우선 현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학문까지 조소거리로 삼는다. 그리고 정치학을 정치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입신양명학’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통설이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정치학자더러 입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좋겠다며 야유를 보내는 심리

의 저변에는 이와 같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가지 변수를 더 고려해야 한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수는 체제의 안위를 위협하는 불운한 또는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내내 붙어 다녔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의 신설 또는 증과가 억제되는 틈을 타서 행정학과가 번창을 거듭하는 예외적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 회화적인 일은 기업의 신입 사원 모집 광고에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을 사절하는 각주가 따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정치학을 침묵시키고 싶어 했던 그간의 편견과 무지가 정치의 파행성과 맞물리면서 한국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제 시대는 많이 바뀌었다. 민주화가 속도를 붙여 가면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에 대한 정치적 사시(斜視)도, 기업주의 불안도 많이 해

소되었다. 오히려 정치외교학과 ‘특수’(特需)를 기대하는 것이 그리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2. 시대의 변화

과거 대학 입시사를 들추어 보면 한국에서 정치외교학과가 특별히 인기를 끌던 때가 있었다. 해방 이후처럼 나라가 격동의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4·19 직후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끓어 오르던 때가 바로 그 경우이다. 몇몇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입시 경쟁률이 쉽게 10 대 1을 넘곤 했다. 이제 그 때와는 또다른 이유로 정치외교학과가 주목을 끌게 되었다.

첫째, 선거가 빈번해지면서 ‘선거 전문가’를 양성하고 선거와 관련된 지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둘째, 지구촌의 사회경제적 거리가 현격하게 좁혀지면서 ‘세계’를 공부 대상으로 하는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연구의 모체가 될 정치외교학과의 임무가 더욱 막중해진 것이다.

셋째, 보다 철학적인 이유에서도 정치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용화, 탈가치화가 시대의 조류가 되면서 삶의 중심을 잡아줄 근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행복을 탐구하는 학문’인 정치학의 철학적 과제에 대해 새삼스럽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외교학과가 그동안의 침체를 털고 도약을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이 시점에서 정치외교학과의 교육방향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학부제의 도전

학부제의 전면 실시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치외교학과와 교과과정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해졌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10개 남짓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상황 앞에서 지금처럼 방만하고 구태의연한 커리큘럼으로는 타학문과의 자유 경쟁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학부제가 정치외교학과와 발전에 위한 밑거름이 될 여지도 많다. 시대의 요구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이 모든 변화가 축배 아니면 독배(毒杯)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기업이나 언론계를 중심으로 신입 사원을 선발하는 입사 시험의 유형이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고등 고시를 비롯해서 최고급 두뇌를 선발하는 각종 시험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노력을 강요하는 형태로 고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응시자 본인의 생각과 지식을 총체적으로 묻는 논술형 출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학문을 섭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정치외교학과 졸업생들에 대해 쳐져 있던 인위적 진입 장벽이 제거되는 추세에 덧붙여진 또하나의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외교학과와 강좌가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독서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교수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강의 형태로는 전공 학점 이수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어렵다.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고 사색할 수 있도록 독서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매체를 강의 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심어 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선거 때가 되면 학생들이 자원 봉사의 형태로 선거 과정의 한가운데에 뛰어들든가 각종 서베이를 직접 실험해 보는 것 또는 국회나 정당, 기타 시민운동 단체에서 일정 기간 인턴 형식의 실습을 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입체적 경험을 촉진하면서 정치현상의 본질에 대해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요긴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다매체 활용형 강의가 한편으로는 정치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진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켜 주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 '행복학'으로서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을 '학문 중의 학문'이라고 불렀다. 격정에 쉽게 사로잡히는 젊은 이들로서는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정치학이라고까지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을 이처럼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것이 행복학(幸福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그가 볼 때, 인간은 자기 완성 또는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윤리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선(善)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로는 행복이나 선 같은 가치의 중심을 구명하는 정치학이야말로 최고의 학문이 아닐 수 없다.

정치학의 침묵을 강요하는 세태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도대체 시의에 맞지 않는 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말해 두어야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었던 문제, 즉 가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 시대의 황금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는 바야흐로 무너지는 시대이다. 기존의 질서에 대한 도전과 파괴가 곧 발전의 원동력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정도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가치 자체에 대한 부정은 용납될 수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치 파괴로 손쉽게 등식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체주의 철학의 밑바탕에는 자유와 윤리에 대한 원망(願望)이 타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건설을 지향하는 한, 해체는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는 무원칙한 파괴가 철학의 가면을 쓰고 횡행한다. 그리고 객관적 진리나 가치의 질서에 대한 무차별적 회의를 미화하려 든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여배우는 그저 벗는 것이 프로페셔널의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일상에 탐닉하는 것이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한 후쿠야마가 가치의 본말이 전도된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도높은 개탄을 쏟아 붓는다. 추상적 가치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고 오직 타산과 욕심만으로 충만한 미래 사회에 남은 것은 권태와 과거에 대한 향수뿐이라는 것이다. 역사는 완성되지만, 그 미래는 매우 슬픈 연대기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 그런가?

사람은 물질만으로 살 수가 없다. 세속적 쾌락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 가치를 찾거나 최소한 그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말했던 것과 같은 이데아의 정점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다. 최소한의 가치 공유점을 찾아내고 이를 넓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방황을 이겨낼 첩경이다.

사람은 뜨거운 것에 몸이 닿으면 본능적으로 멀리한다. 물고기는 산소가 부족하면 수면 바깥으로 고개를 내민다. 사람도 자연을 두려워하고 그 고마움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람이 자연의 본능에 순응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곧 가치의 본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발원해서 근대의 존 스튜어트 밀, 칼 맑스로 이어지는 ‘발전주의’ 철학에서 가치의 중심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아를 실현하는 것, 좀더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능력과 소질을 구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방과도 같이, 세상은 가치를 비하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 위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니 그 심각함에 대한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한 철학의 위기 앞에서 정치학은 더 이상 과거처럼 가치 중립을 운운할 처지가 못 된다. 객관적 탐구를 향한 자세는 물론 견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치 그 자체를 외면한 결과, 가치 부정이라고 하는 또하나의 가치 체계가 세상을 잠식하도록 방치했던 그간의 오류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가치론의 입장에서 과학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 행복의 본질, 인간과 사회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정치학의 고유한 본령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치학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당당히 소리를 내야 한다. ‘권력학’이 아니라 ‘인간학’ 또는 ‘행복학’의 관점에서 세상을 향해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외교학과에 주어진 철학적 과제이다.

5. 정치학 개론의 혁신

학부제 체제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치학 개론」 과목에 대한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은 정치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학 개론」 교과목이나 교과서는 그러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키거나 충족시키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들을 일별해 보라. 온갖 지식을 다 주입시켜 주겠다는 듯, 책들이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지식들이 단편적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가치 평가를 도와줄 이론적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학 개론」 과목을 2, 3학년에서 배우게 될 각론의 예비단계로 성격 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비교정치나 국제정치 등과 같은 각론의 기본을 요약하느라고 페이지를 늘려 잡을 수밖에 없다.

정치학 교과서가 각종 고시생들을 우선적으로 겨냥하는 한, 백화점식 나열 구조화가 좀처럼 시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고시라고 해서 출제 패턴이 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학문 분야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게 만드는 학부제 체제 아래에서는 그와 같은 교과서나 교과과정이 전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리라는 점이다. 학생들 스스로 정치 문제에 대해 사고하면서 관심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정치학 개론」이 바뀌어져야 한다. 정치가 무엇이며, 인간이 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방도를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학 개론」의 '주고객' 중 상당수가 신입생 또는 이공계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많이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소망스러우리라 여겨진다. 두세 권의 정치학 고전을 직접 읽고 보고서를 쓰게 한다면, 최인훈의 『광장』 또는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같은 소설을 읽고, 아니면 『미션』 같은 비디오를 같이 본 뒤 토론을 벌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생들의 직접 체험이다. 각종 정치현장에 들어가 다양한 체험을 해본 뒤, 이론과의 연결점을 숙고하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정치학 개론」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접을 깊이 인식하여 정치학 기초 과목이 '소비자'에게 스스로 다가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현실적 수요에 대한 준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제 그 꽃이 오랜 동면 기간을 거쳐 마침내 한국에서도 만개하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방의 소규모 선거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의 선거가 붓물을 이루는 형국이다. 정치외교학과가 출마자나 투표자에게 선거의 바른 의의를 가르쳐 주고 선거운동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중차대한 과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직을 담당해야 할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래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들이 올바른 국가관 또는 민주주의관으로 무장한 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인가의 여부가 한국 민주주

의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왕의 국민윤리 교육이 체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했던 점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이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 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수요가 늘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정치외교학과 커리큘럼 중 선거나 정당에 관한 부분이 미미하다. 지방정치에 관한 강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도 많지 않아 집중 투자가 요망되는 분야라고 하겠다.

셋째,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 대한 방법론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적인 통계를 분석·이해하고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기본 소양이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더욱 필요하다. 서베이 등 경험적 접근법에 숙달되지 않으면 선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한국의 정치학계가 행태주의의 물결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 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치외교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제대로 된 경험론적 접근법을 강의하는 학교는 매우 드물다. 정치학의 사회적 봉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방법론 교육의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국경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지역 연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심지어 외무고시도 지역 전문가를 특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질 조짐이다. 따로 지역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는 당연히 정치외교학과가 지역학 연구의 중심으로 부상될 것이다. 지역 연구는 특히 학문간 상호교류(interdisciplinary)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 지역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학적, 인류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부제의 도입은 이런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정치학은 그 학문적 성격상 인접 학문 분야의 지식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흔히 지역 연구를 어학 또는 경제적 실리라고 하는 좁은 차원에서 접근하려 한다. 그러나 종합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지역 연구가 수행되지 않으면 그러한 연구는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현실을 중요한 기회로 간주하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정치외교학과에 있다.

다섯째, 그동안 한국의 정치외교학과에서 한국 정치에 관한 강좌를 소홀히한 면이 없지 않다. 한국 정치 사상이나 한국 정치사를 건너뛰어, 한국 정치론이라는 이름의 한두 개 과목으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미국의 대학에서 미국 정치론을 필수 과목으로 내세우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대조적이다. 이제 세계화 바람 속에서 그나마의 위치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상황이다.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치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7. 새로운 출발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외교학과가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면 몇 가지 파행성이 발견된다.

우선 정치외교학과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 자체의 발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체되었다. 또 정치학을 직업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수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한국 학계를 대표할 만한 정도의 수준 높은 연구는 그리 많이 생산되지 못했다.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이 권력 비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학계가 권력 지향적 또는 현상 옹호적 기능을 마다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과거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학과와 교육방향이 철학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는 바탕 위에서 현실 수요에 부응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현실과 너무 유리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단순히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적 학문의 양산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시대를 이끌 철학을 제시하면서 현실을 조망하는 조화가 절실하다. ▀

서병훈/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자유와 본질과 유토피아 :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 『다시 시작하는 혁명 : 아멘데와 칠레식 사회주의』 등이 있다.